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광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란 해당 국가 간의 상품과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약속이다. 이 협정을 체결하면 약속된 범위의 상품들은 해당 국가들의 국경을 관세나 쿼터와 같은 무역장벽 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면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평가된다. 어떤 이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하

한·미 FTA의 전제 조건

는데, 이러한 논리는 북한, 쿠바, 리비아 등과 같은 폐쇄국들만이 독립국일 수 있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어떤 이들은 자료 조작 운운 하는데, 경제 분석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면 해소될 수 있는 오해라고 본다. 농민 단체, 영화인들은 자기 보호의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다고 보나,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능력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도 국내 기업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이 여러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도 이런 역차별이 지속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세계은행의 "2006 기업환경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3위, 한국은 27위이다.

한 지원 대책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농수산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다른 업종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내기업환경을 미국과 동일 수준으로 조성해 줘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과 미국의 기업들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족쇄를 달아 놓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도 국내 기업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이 여러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도 이런 역차별이 지속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세계은행의 "2006 기업환경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3위, 한국은 27위이다.

사전준비가 중요

셋째, 자유 무역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국가 의사 결정의 독립성"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기간산업이나 기간 기술의 개념 설정과 그 산업·기술에 관한 안전장치의 내재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미 FTA는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익의 극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논쟁은 이 사전준비작업에 조정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돈냄새 가지지 않는 선거 언제까지 할텐가

지방선거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추악한 공천현금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 중진인 김덕룡·박성범 의원의 공천현금수수 여부를 내부 조사 하듯 끝국 검찰에 고발까지 한것은 저간에 벌어지고있는 돈선거의 추악상을 집작케 한다.

한국의정치의 행태상 자당 국회의원이 시장·군수·구청장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돈을 받았다면 크게 말썽이 나지 않는 한 덮어 두고가는 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성과 들만 돈을 받던 게 아니라 때론 돈이 오지 않거나, 심지어는 당내인사가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대 제1야당이 두사람의 공천장사문제를 검찰로 넘겨버린 것은 문제가 쪼여도 너무 고약하게 꼬였기 때문이다. 덮어 덮어 덮을 수 없을 만큼 말썽이 커졌고 이를 어둠어둠 하다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불똥이 튀기 때문일 것이다.

비단 한나라당 뿐이겠는가. 광주·전남에서도 요즘 각급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공천하면서 노골적 현금 요구가 횡행하고, 현금 약속의 다과(多寡)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는 소식이 흔하게 들린다. 특정지역 국회의원이 군수공천대가로 10억을 요구했다는니 공천의원 공천대가로 3억을 요구했다는니, 공천현금에 응하지 않은 후보가 결국 탈락했다는니 하는 이야기들은 더이상 비밀도 아닌 것처럼 처부된다.

지방선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군사정권으로부터 쟁취해 낸 빛나는 성과다. 우리는 이미 91년 기초의원 선거를 포함해 네차례의 민선 지방선거를 치렀다. 선거법이 엄정하게 강화를 유권자에 대한 매표(買票)행위는 줄어들어 간다지만 정당 내부에 아직도 '특별 담비'라는 형태를 빈 돈거래가 가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와 경찰·검찰은 철저한 증거수집으로 여·야를 살피지 말고 돈선거가 담자를 엄벌하기 바란다. 언제까지 후진적 정치문화를 반복할건가.

토익만점 중학생이 자퇴하는 공교육 실상

토익시험에서 990점 만점을 맞아 화제가 됐던 광주 동명중 2년 박성준 군이 최근 학교를 그만뒀다. 성준 군은 현재 집에서 홀로 대학입시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준 군의 자퇴는 확실적이고 물개성적인 우리의 공교육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성준 군이 학교에 유예원을 제출한 이유는 학교생활이 재미없어서다. 성적은 전교 상위권이지만 틀에 박힌 학교생활때문에 좋아하던 테니스며 바이올린을 즐길 수 없어 학교에 대한 흥미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우리의 공교육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원어문 수준 영어실력을 지닌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도 아직도 독해와 문법중심의 60년대식 영어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선행학습이 성행하면서 정규수업시간은 시간 때우기에 그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국·영·수도 모자라 예·체능 과목까지 개인과외를 받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신제도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될 기 일쑤다.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한두가지 정책수단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단순히 자사고나 특목고를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급선무다. 10년전부터 선보인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등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향적 정책이 아랍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대학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교육 몰락과 사교육 창궐을 막기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양화



최근 특수학급 학생들을 데리고 '멘토와 멘티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온종일 불비가 내리자 정서장에 학생 몇 명은 행사장 대강당까지 찾아가는 마음이 다소 착잡했을 지도 모른다.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연마하는데도 기여하게 되리라. 현재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맑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오늘 '멘토와 멘티 만남'의 행사도 그런 지원들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멘토와 멘티의 만남

고 한다. 비록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아름답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가꿔가며 훌륭한 인생을 설계하도록 좋은 언니·형·누나 그리고 오빠의 역할을 담당해주려 한다고 한다.

교육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그렇기에 대학생 멘토와 장애학생 멘티의 만남은 더욱 귀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겠다.

놀이공원, 안전이 최우선이다

놀이공원에서의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롯데월드가 무료계장을 했다가 엄청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수십명이 부상당하는가 하면 광주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안전 요원을 일건하기도 했다.

진 것에 대한 사과 의미로 무료 개방 행사를 했다가 사고가 빚어져 상업적 측면만 강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놀이공원은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특히 안전요원이나 직원들은 매일 하는 일이나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이근모



영혼의 현상학자 바슐라르는 유년시절 눈(雪)에서 장미와 소금냄새를 맡았다며 눈의 냄새는 생기가 있는 차디찬의 냄새 그 자체라고 말했다.

문학과 독서

있어야 할 일, 있을 수 밖에 없는 일을 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하여 감히 그 큰 뜻을 수정 보완하여 진실한 세계, 이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숭고한 창조자의 사명감을 완수하는 것이라 했다.

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취하는 것과 낭만의 끼를 부리는 인생 싸움꾼으로 승수된다. 겨우내 울추렸던 우리의 몸동작이 생동하는 4월의 문턱에 서 있다.

독자마당

문화·복지 소외받는 섬주민 배려 있어야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섬마을 사람들을 위한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어 적어본다. 완도·진도군, 여수시 일부 지역 등 도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다. 이 때문에 섬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를 준수하고 우리나라의 법을 지킨다.

지도 있다. 심지어는 7일 급수까지 하는 지역도 있다. 문화적인 혜택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하자면 전 국민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법한 휴대전화의 무선 인터넷이 '접속 불가지역'이라고 나올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각종 복지시설이나 혜택 등은 같은 군이라 하더라도 육지와 도서지역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새벽이나 한밤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이라도 입으면 응급처치가 쉽지가 않다. 도서지역 병원은 육지의 병원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또 야간에 운행하는 선박도 없어 응급치치가 시급한 환자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섬마을 주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창진·원도경찰서 고급파출소

無等鼓

〈본명 신유숙 63년생. 6·25 전쟁 중 부산에 정착한 부모의 1남 4녀 중 막내. 샷바느질로 연명하던 어머니는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1966년 가을 막내딸을 스웨덴의 항구 도시 노르웨이에 보냈다.〉

지난 1989년 MBC TV '인간시대'는 한국의 어린 소녀가 해외로 입양되고 미혼모가 된 사연, 그리고 친어머니를

워드 '열풍' 이후



국가사회에 연착륙시키지 못하는 프랑크 품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신문과 방송은 다시 침묵한다. 혼혈아에 대한 관심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게 한국인만의 '남비근성'이다.

현재 3만5천여 명에 달하는 코스안(Kosian = Korean + Asian)이 정치 세력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신문과 방송은 다시 침묵한다. 혼혈아에 대한 관심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게 한국인만의 '남비근성'이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